

# 호랑이, 다시 뿔다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 류지혁 등 주전 선수들이 지난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타이거즈 주축 선수들 새 시즌 준비 마무리 훈련 돌입

‘호랑이 군단’이 다시 뿔다. KIA 타이거즈 주축 선수들이 지난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새 시즌을 위한 기지개를 폈다. 지난 13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선수들은 지난 29일 ‘2022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통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한 시즌을 정리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 실내에서 웨이트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은 이후 그라운드에서 올라서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이어 ‘최고참’ 최형우는 이우성과 짝을 이뤄 방망이를 들었고, 나성범과 김호영은 함께 그라운드를 돌면서 러닝 훈련 진행하는 등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새 출발을 위한 위닝업을 시작했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시작했지만, 선수들에게

는 진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막판 순위 싸움 끝에 5위를 확정하면서 4년 만의 포스트 시즌이라는 성과는 냈지만,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2-6 패를 기록하면서 일찍 ‘가을 잔치’를 끝내야 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큰 동기 부여가 됐다. 올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끈 내야수 김선빈은 “시즌이 끝나니 허탈하다. 아쉽다. 매년 항상 그렇다. 내년에는 정말 늦게까지 야구하고 싶다. 모든 후배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며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많이 생긴 것 같다. 어린 선수들도 가을 야구를 경험해보고, 그래서 더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선빈 개인으로 보면 많은 걸 배운 시즌이 됐다. 팀의 베테랑은 물론 주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김선빈은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다. 김선빈은 “원래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라 주장이 돼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다(웃음). 와일드카드 결정전 끝나고 속소 들어갔는데 투풍이 심해서 바로 골야필

어졌다”며 “올 시즌 있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진 그런 느낌이었다. 재미있기도 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었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주장으로 보낸 올 시즌을 돌아봤다.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한 것은 김선빈에게는 가장 큰 성과다. 그는 올 시즌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140경기를 뛰면서 내야를 지켰다. 김선빈은 “매년 부상에 시달렸으니까 부상 없이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올 시즌 부상 없이 뛰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똑같다. 안 다치고 뛰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경기 성적은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안 다쳐야 성과가 나오니까 부상 조심하면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광주에서 호흡을 맞췄던 마무리캡 선수단은 31일 오후 비행기로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 캡프단’은 김종국 감독의 지휘 아래 1일부터 24일까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서귀포시 강창학야구장 일원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존슨, LIV 최종전 단체 우승... 228억 ‘돈방석’

## 4에이스스 모두 언더파 스코어 7언더 친 스미스, 팀 부진에 2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올해 출범한 LIV 골프의 간판적인 퍼스트인 존슨(미국)이 단체전으로 열린 LIV 인터내셔널 시리즈 최종전인 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존슨이 이끄는 4에이스스는 지난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널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결승 경기에서 7언더파 281타를 합쳐 1위에 올랐다. 최종일 결승은 준결승을 통과한 4개 팀 선수 4명이 스트로크 플레이를 펼쳐 함께 타수로 순위를 가렸다. 4에이스스는 주장 존슨과 패트릭 리드, 팻 퍼레즈(이상 미국)가 2언더파 70타를 쳤고, 테일러 구치(미국)가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는 등 4명이 모두 언더파 스코어를 때렸다. 4에이스스는 우승 상금 1600만 달러(약 228억 원)를 받아 1인당 400만 달러(약 57억 원)씩 나눠 가졌다. LIV 골프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 영입한 전 세계랭킹 1위 존슨은 LIV 인터내셔널 첫 시즌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승을 거둬 무려 1763만 달러(약 251억 원)를 벌면서 상금왕에 올랐다.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주장을 맡은 편치는 1타차 2위에 올랐다.



LIV 인터내셔널 시리즈 최종전인 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4에이스스의 퍼스트인 존슨, 패트릭 리드, 테일러 구치, 팻 퍼레즈(왼쪽부터)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널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결승 경기 후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미스는 혼자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고 팻 존슨(호주)이 2타를 줄였지만, 마크 리슈먼(호주)이 2오버파 74타로 부진한데다 웨이 움스비(호주)도 1타를 잃어 아쉬움을 남겼다.

브룩스 켈프(미국)가 이끄는 스매시는 4오버파 292타로 3위, 루이 우스트리즌(남아공)이 주장으로 나선 스팅어는 10오버파 298타로 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손흥민과 함께

지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25 지메스강남점에서 직원들이 손흥민 크리스마스 실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2022년도 크리스마스 실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다. /연합뉴스

# 한국시리즈 1~4차전 시구·응원 없이 진행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1차전 김광현·안우진 선발

한국시리즈 1~4차전이 시구와 응원 없이 진행된다. KBO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과 많은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며, 사전 행사 등을 최소화해 한국시리즈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애도 기간에 진행되는 한국시리즈의 1~4차전은 시구 없이 경기가 시작된다. 응원단장은 관중의 안전한 관람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으며 치어리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앰프나 축포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는 경기 시작 전 모든 선수와 관중이 묵념의 시간을 갖고 애도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또 1~4차

전 동안 선수단과 심판 전원은 모자 왼쪽에 애도 리본을 부착한다. KBO는 지난 31일 SSG 랜더스 필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구단 안전관리 책임자와 함께 관중의 안전한 관람과 이동을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KBO는 “경기장 안전요원을 증원해 경기장 퇴장 시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고, 파울 타구 등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맞대결로 전개되는 한국시리즈는 정규리그 우승팀인 SSG의 안방에서 시작된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시리즈의 기싸움은 KBO 좌완을 대표하는 김광현과 우완 안우진이 맡는다. 김원형 SSG 감독과 홍원기 키움 감독은 지난 31일 진행된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각각 김광현과 안우진을 1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파워, PGA 버뮤다 챔피언십 우승

## 안병훈 17위·노승열 35위

세이머스 파워(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총상금 65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파워는 지난 31일 버뮤다(미국)의 포트 로열 골프클럽(파71·682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5타의 성적을 낸 파워는 토마스 데트리(벨기에)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17만 달러(약 16억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파워는 지난해 7월 바하마 챔피언십 이후 1년 3개월 만에 PGA 투어 2승을 달성했다. 2타 차 선두로 마지막 18번 홀(파4)을 시작한 파워는 짧은 파 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어 냈지만 우승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먼저 경기를 마친 데트리는 18번 홀 그린 주위 벙커에서 시도한 샷이 그대로 홀 안으로 들어가 행운의 버디를 잡고, 파워와 격차를 2타까지 좁혔으나 남은 홀이 없었다. 전날 3라운드까지 파워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린 벤 그리핀(미국)은 11번 홀(파4)까지 5타를 줄이며 단독 1위로 뒤흔 나갔으나 12~15번 홀에서 4 연속 보기가 나왔고 16번 홀(파3) 티샷은 볼에 빠지면서 2타를 잃고 무너졌다. 올해 26세인 그리핀은 2019년에 골프를 그만뒀다가 다시 필드로 돌아온 선수다. 2021년 11월 2부 투어인 콘페리티어 웰리파이팅 토너먼트에서 공동 29위에 올랐고, 올해 콘페리티어에서 준우승을 세 차례 하며 PGA 투어에 진출했다. 안병훈은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17위, 노승열은 9언더파 275타로 공동 35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